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부님 일정

- * 9월 30일 - 10월 11일 : 그리스, 터키 성지 순례
- * 10월 13일 : 미국 본당 견진 성사 집전
- * 10월 21일 - 23일 : 교구 사제 모임
- * 10월 24일 - 27일 : 꾸르실료 참석

● 주일 미사 집전

- * 10월 6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 10월 13일 : 김상균 신부님(외방 선교회)
- * 10월 27일 : 김기현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 가을 야외 미사

일시 : 10월 20일(일), 오후 12시 30분 주일미사
장소 : Laurel Acres Park
1045 S. Church St, Mt. Laurel

●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

매 주일 미사에 '말씀의 전례 어린이 교실'이 운영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 신자 주소록 발간

각 구역별로 신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모아서 회장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41차 남성 꾸르실료 교육

일시 : 10월 24일(목) - 27일(일)
장소 : 뉴턴 수도원
문의 : 신부님 혹은 윤모니카 회장

● 성가책 판매

소 : \$25, 대 : \$30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관우 바오로 부제, 이길자 데레사, 배향숙 루시아, 한 베드로>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마틸다 구역 : 10월 16일(수) 오후 7시에 짬분식에서 있습니다. <김희겸 시몬 형제님 주관>
짬분식 : 2431 Church Rd. Cherry Hill, NJ 08002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글로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사목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나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울뜨레아 : 매월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사목회 : 추후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21번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29)
제1독서	하바룩 예언서 1, 2-3; 2, 2-4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1, 6-8. 13-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복음	† 루카 17, 5-10
봉헌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212)
성체성가	176번 믿음 소망 사랑 (496)
퇴장성가	402번 세상은 아름다워라 (59)



오늘 주-님 목소 리에 귀를 기울 여 라 너희마 - 음 을 무디게 하지 마 라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7주일 10월 6일	연중 제28주일 10월 13일	연중 제29주일 10월 20일
제1독서	이상민 아우구스티노	하국일 암브로시오	황선동 스테파노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재숙 제노베파	박민수 벨라도
봉헌자	김영두, 김영숙	정의환, 김충수	박민수, 이매향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나무더러 ‘뿔뿔히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돌무화과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에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딥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작은 믿음도 돌무화과나무처럼 견고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비유를 들려 주십니다. 좋은 주인에게 명령받은 모든 힘든 일을 수행하고 나서도, 주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무슨 일을 하든, 주인에게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권리나 보상도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주인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를 했다 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지신 것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오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승복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고하고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겨자씨만큼 작고 깨지기 쉬운 믿음이라도,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나오고, 삶의 경이로움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성근 사바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9월 29일(일) >

봉헌금	\$500.00	
교무금	\$600.00	김희동(4-9)
예물봉헌	\$40.00	
성가책 판매금	\$30.00	
Total	\$1,170.00	